

선교 모자이크

USCDYER



ACT/CA



2020 년도 현황



ACT/NCCP

ACT



 **PRESBYTERIAN
DISASTER
ASSISTANCE**

OUT OF CHAOS, HOPE

E12

SUSAN KREHBIEL

모자이크 단상: 장로교 재난 지원 프로그램 디렉터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난 한 해였다... 어디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 오랫동안 재난 대응과 기금 지원 사역에서 함께 일해온 사역자가 COVID-19 인식과 위생에 관해 한 말을 한 동료는 최근에 들려주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손을 씻는 것은 음식을 함께 먹기 전에 행해지는 관습이라고 했다. 그 사역자는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손을 씻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하루 종일 손을 씻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음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손을 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 처참한 재난의 피해를 극복하는 동시에 전염병에 맞서 싸우고 있는 공동체의 상황을 보여준다. 이 공동체에 지속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노력할 때, 직면하는 도전들도 잘 나타나있다. 전 세계 공동체들의 다양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원들을 나누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그 일은 또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다.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하여, 전통적인 기금 모금과 모임이 어려워진 때에, 우리는 초창기부터 PDA와 함께 사역하고 기부해서 PDA를 성장시킨 수 많은 증인들을 주목했다 (10-15 페이지 참조). 재해가 일어나면 관대한 기부자들은 큰 그림을 보고, 지금 겪고 있는 재난을 극복할 뿐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재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기부를 한다.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보내 준 성금이 준비되어 있었기에, PDA는 국내외에서 실질적으로 코비드-19에 대처할 비상 자금 270만 달러를 마련할 수 있었다. 많은 공동체와 파트너들을 돕기에는 이 기금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떻게 누구에게 이 기금을 분배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우리는 노회나 오랜 국제 파트너 기관들이나 마태복음 25장 사역에 헌신하는 동료들과 상의했다. 우리는 이렇게 물었다. "COVID-19 상황에서 누가 굶주림을 겪고 있는가? 누가 목말라하는가? 누가 집이 없는가? 누가 수용소에, 불안정한 대피소에, 아니면 구치소에 갇혔는가?" "여러분 교회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초청을 이행하기를 기다리는 여러분 공동체 안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들을 듣는 가운데, 치유와 희망을 위한 자원을 그 지역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분명해졌다.

"이" 팬데믹이 실은 인종차별과 코로나가 합쳐진 쌍둥이 팬데믹이라는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 분명해졌다. 그리고 이것은 인종차별, 코로나 바이러스, 제도적 빈곤, 계속되는 자연 재해, 기후 변화가 낳은 재해 등이 합쳐진 복합 팬데믹으로 발전했다. 오랫동안 자원 배분에 있어 악한 불평등이 존재했다고 증언을 해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이 불평등은 재해를 겪는 동안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은 취약 계층을 낳았고, 온전함과 회복을 위해 나아가려 하는 우리의 노력도 취약하게 만들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온전하거나 자유롭지 않다면 한, 우리는 결코 "회복되거나" 온전해질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중 가장 작은 자 만큼만 강하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셨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그 작은 자들의 얼굴을 보라고 우리를 초청하셨다. 이 힘들고 불확실한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방법들에 대해 감사드린다. 우리의 파트너들, 형제 교회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혼자자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한 서로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감사함으로 ...

Laurie Kraus



**PRESBYTERIAN
DISASTER
ASSISTANCE**

OUT OF CHAOS, HOPE

800-728-7228

로리 크라우스
디렉터

Laurie.Kraus@pcusa.org- x5840

데이빗 반하트
이야기 사역 담당자

David.Barnhart@pcusa.org- 773-230-4050

에드윈 곤잘레스-카스티요

남미 및 카리비안 난민 재해 사역부 담당

Edwin.Gonzalez-Castillo@pcusa.org- x5084

짐 커크

전국 재난대응 담당자

James.Kirk@pcusa.org- x5036

수잔 크레비엘

난민 및 망명자 사역 담당자

Susan.Krehbiel@pcusa.org- 502-565-6148

마일스 마크햄

전국 재난대응

선교 전문가

myles.markham@pcusa.org - 502-216-8283

데이빗 마이어스

선임 자원위원

David.Myers@pcusa.org- 502-200-4878

데이나 올리버

국제 프로그램 행정 담당자

Dayna.Oliver@pcusa.org- x8700

캐시 라일리

영성목회 담당자

Kathryn.Riley@pcusa.org- 859-536-7792

이든 로버츠

전국 자원봉사자 팀

등록 센터

PDA.CallCenter@pcusa.org 866-732-6121

셰쿠 실라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프로젝트 매니저

Sheku.Sillah@pcusa.org

레베카 스닙

행정프로젝트 매니저

Rebecca.Snipp@pcusa.org- x5326

카메론 스티븐스

회원관계 담당자

Cameron.Stevens@pcusa.org- x5839

카메론 스티븐스

편집자

마크 탐슨

디자이너

리치 코플리

미국장로교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달라 카터

미국장로교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자문 위원:

젠드라 마켓, 공동위원장; 케네스 페이지, 공동위원장; 대크메리 포르네스 아르세레이, 잔 뷰캐넌, 로라, 세이페즈, 캐린 피지, 제로드 로우리, 케네스 페이지, 데이브 델만 (전국 재난대응팀 연락 담당)



이번 호를

온라인에서 영어, 스페인어,

그리고 한국어로 보기를 원하시면

PCUSA.ORG/MISSIONMOSAIC 20

을 방문하세요.



리지드 켈드웰



마태복음 25:31~46은 우리가 우리 주변의 세계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활력을 얻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사역으로의 초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여러분은 우리 교단이 세상과 더 밀접해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PCUSA.ORG/MATTHEW25에 있습니다.

교회의 기둥이 되어 주십시오: 자비, 평화, 정의의 사역을 실천하고 있는 PDA에 월간, 연간 정기 헌금을 해주시길 청합니다.

PCUSA.ORG/PILLARS

PDA 관련 링크

FACEBOOK.COM/PDACARES

TWITTER.COM/PDACARES

블로그 PCUSA.ORG/PDABLOG

PCUSA.ORG/PDA

PDA@PCUSA.ORG



ACT/NCA



Presbyterian Church (U.S.A.)
Presbyterian Mission

CORONAVIRUS

대응

파트너 기관들은 COVID-19 기금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지원 대상자를 보듬었다.

리치 코플리

전례없는 재난은 전례없는 대응을 요구했다.

"세계 전역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재난 대응 담당자, 짐 커크 목사는 지난 봄 COVID-19 전염병이 확산되었을 때에 이와 같이 말했다. "한 전염병이 전 세계에 걸쳐 이 정도까지 충격을 주었던 적이 없습니다. 모든 지역사회, 모든 교회, 모든 파트너들이 전염병에 의해 다양한 양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염병 감염으로 인한 영향이든지, 락다운과 비즈니스 영업 중단 등 전염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든지, 혹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립감이 야기한 정신 건강의 문제이든지, COVID-19는 장로교 재난 지원 프로그램(PDA)이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재난이었다. 아무리 극심한 재앙이 일어나더라도, 보통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된다. 그러나 COVID-19에는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이 없고, 그 어느 때보다 지원이 필요한 곳이 많았다.

PDA 직원들은 경험을 토대로 소외된 지역사회가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코로나 유행 초기부터 이러한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일을 시작했고, 교회와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전염병 시작부터 2020년 말까지, 재난 대응 프로그램은 \$3,469,619.28 에 달하는 476개 기금을 세계 56개국과 국내 125개 장로교 중간 공의회에 전달했다.

이 사역이 그런 큰 액수를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PDA가 가장 필요한 곳에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로교인들이 여러 해 동안 현금해 준 일반기금 덕분이었다.

"우리 공동체에는 수년 동안 관대하게 기부를 한 수많은 장로교인들과 그 외의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PDA 디렉터인 로리 크라우스 목사는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 재해에만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재해 대응 기금에도 기부합니다. 이는 PDA가 잘 알려진 재해 외에도 다른 많은 재해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신중하게 일하는 것을 신뢰합니다."

"지금은 힘든 때입니다. 우리가 비축한 자금을 써야 합니다." 교단의 유서 깊은 관대함과 위대한 나눔의 실천 특별헌금이 없었다면, COVID-19에 대처하기 위해 270만 달러를 현장에 투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PDA는 마태복음 25장 사역 연장기금으로 \$300,000 을 추가해서, COVID-19로 인해 교회의 존폐 여부가 문제되는 교회에 최대 \$7,500 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미국장로교 총회 선교국 수석 이사 및 회장인 다이안 마펫 목사가 따로 마련했다.

마펫 목사는 말했다. "2020년과 그 해에 일어난 모든 일은 공동체의 의미를 재정의했습니다. 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을 겪는 동안에도, 마태복음 25 장 기금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계속 노력하고 있는 교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리고, 억압 받고, 감옥에 갇히거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 담대하게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을

빈곤철폐를 위한 시민사회 연합 (CISCOPE)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 교회들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CISCOPE 와의 협력을 통해, 나이지리아 아다마와 주의 북 울라에서는 가정들이 음식과 개인 보호 장비를 지원 받고 있다.

크라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모두가 전염병의 영향에 직면하는 중에도 전도와 교단 내 회중 지원 두 가지 모두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와 노회에서 자기 관리 및 봉사의 균형을 잘 맞추었다는 뜻입니다. PDA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와 협력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돈을 주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PDA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체들과 함께 했으며, 전염병 가운데에서도 공동체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발빠르게 제공했다. PDA는 에볼라 바이러스와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응을 통해 신뢰할 만한 경험과 전문가의 지침을 갖추었다. 또한 PDA의 영성 목회 팀은 발빠르게 화상 세미나를 개설해, 코로나로 인한 영적 정서적 문제를 다루는 신앙 지도자나 공동체 지도자의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증진시켰다.

PDA 직원들은 수많은 기금의 수혜자들이 그들이 받은 자원들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감탄하고 있다.

난민 및 망명자 사역 담당자인 수잔 크레비엘은 워싱턴 D.C. 의 카페 Ridgetop Coffee and Tea 사역을 예로 들고 있다.

이는 버지니아 주의 스프링필드에 소재한 리버사이드 장로교회의 한 사역인데, 이 사역을 통해 청년들이 기술을 익히고 외식 산업에 입문하고 있다. 그러나 전염병으로 식당 내 식사가 중단되었을 때 그 청년들은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카페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카페를 닫아야 했습니다"라고 크레비엘은 말했다. 그녀는 지역의 농부들 및 생산자들과 그 카페와의 관계를 언급했다. "그들은 이 카페를 통해 외식 산업을 배우는 청년들에게 임금을 계속 주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들 중 다수는 서류 미비자이고 두려움 등의 이유로 대중 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고, 이들도 그때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리조나 주 피닉스에 소재한 오렌지우드 장로 교회의 교인들이 그랜드 캐년 노회와 함께 음식과 생필품을 담은 박스를 만들고 있다. 매달 1200 개의 박스가 만들어져, 나바호 인디언 자치국과 토호노 오드함 인디언 자치국에 배달되고 있다.



켄 페이지



온두라스 장로 교회



IDCO



머시 커뮤니티 교회



주넬리 네팔

상단, 왼쪽부터: 온두라스의 오지로의 필수품 배달, 팔레스타인에서 위생 키트 포장 하단, 왼쪽부터: 머시 커뮤니티 교회 음식 포장, 네팔에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나눔

기금을 받으면, 카페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다시 불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일하게 하고, 농산물을 판매할 창구가 없는 소규모 농부들로부터 식품을 계속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포함한 150명 정도의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해 도시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교회, 지역사회, 취약계층 사람들의 정말 멋진 어우러짐입니다. 그리고 이는 기존의 전도 방법을 새롭게 효과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전국 재난 대응 담당자인 커크는 PDA가 미국 전역의 소외된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초점을 맞춘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 중에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알코루에 위치한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Plowden Mill Road After School Enrichment' 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2020년 3월 등교가 불가능해지자 학업을 보충하기 위해서 생겨난 프로그램이다. 주로 유치원 부터 11학년까지 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크라우스는 '위대한 나눔의 실천 특별헌금' 사역, '장로교 기아 대책 프로그램,' '인적자원 개발 장로교 위원회,' '장로교 세계 선교부,' '인종 및 문화 간의 정의' 사무실과 '인종 평등과 여성 다문화 사역 사무실' 등과 협의하여 기금 기준을 만들었다고 한다.

미국 원주민 지역사회는 COVID-19에

의해 특히 큰 타격을 받았다. 미국 전역과 비교할 때, 더 높은 확진률과 사망률로 고통을 겪는 지역사회들이 많다. 다수의 미국 장로교 중간 공의회들은 다코타 노회, 나바호 자치국 그리고 윈드 리버 인디언 보호 구역을 포함한 그들의 지역 내의 미국 원주민 공동체들을 돕기 위한 보조금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밭에서 일하는 지역 사회에서 어떤 노동자들은 전염병 유행 중에도 최소한의 보호 장비도 없이 계속 일해야만 했다. 커크는 PDA가 플로리다 주의 임모칼레 노동자 협회(CIW)와 함께 개인 보호 장비와 그 외의 보조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했던 사역과 기금을 생각했다.

"정말 놀라웠던 것은 농장 노동자 인구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소모품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라고 컬크는 말했다. "CIW와 제휴한 피스 리버 노회는 그들의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크레비엘이 이에 덧붙여 말했다. "CIW의 한가지 주된 관심은 농장 노동자들을 옹호하는 것과 주지사가 농장 노동자들을 필수적인 노동자들로서 인식하고 개인 보호 장비 (PPE)와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성공했습니다."

크라우스는 PDA와 임모칼레 노동자들과의 관계가 '미국 장로교 기아 대책 프로그램'과 '인적자원 개발 장로교 위원회'와의 협력 작업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위대한 나눔의 특별헌금'에서 나타난 협력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COVID-19 국제 대응 부서는 전세계적인 전염병 유행의 충격이 가난, 강압적인 정부, 자연 재해, 그 외 다른 문제들로 인해 이미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 사회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우리는 전염병 유행 이전에 이미 위기들을 겪고 있는 나라들의 파트너들로부터 상황을 전해 듣고 있었다. 그들은 식량과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없는 공동체를 위해 사역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복잡한 상황인데, COVID-19는 여기에 불확실한

상황을 또 하나 더했다. 여행 금지령이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했으며 그런 지역사회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루에도 자주 손을 씻을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라고 크라우스가 말했다.

"저는 COVID에 관해 말할 때마다 제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나귀로 음식을 배달하는 온두라스 교회 사진입니다" 라고 남미 및 캐러비안 난민 재해 사역부 담당인 에드윈 곤잘레스-카스티요 목사가 말했다.

"우리는 COVID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COVID를 겪고 있어. 우리는 다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거야.' 오, 천만예요.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우버 택시로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는 공동체에 나귀를 타고 음식을 전해 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남미와 캐리브해 지역에서는 물과 위생 문제가 당장 시급하다. 그래서 지역 사회를 위해 비누를 만드는 아이티의 여성 그룹과 같은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정수된 물과 위생 용품을 구입하고 추가로 마스크와 기타 보호 장비도 구입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했다. 곤잘레스-카스티요 목사는 아이티에서는 전염병 관련 정보들을 전해주는 순회방송용 트럭을 구입하기 위해 기금이 사용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다른 재난들이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는 또 중남미였다. 11월에 과테말라, 온두라스 그리고 니카라과에 허리케인이 연속해서 지나갔다. 이로 인해 바이러스에 더해 치명적인 홍수, 주택과 식량의 유실이 발생했다. 곤잘레스-카스티요 목사는 사람들이 COVID-19에 전염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대피소를 찾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라우스는 말했다. "재난 대응자들은 항상 말하기를, 오직 한번에 하나씩 재난에 대응한다고 합니다."

PDA가 COVID-19에 대응하면서 2020년에 배운 새로운 교훈들이 있다. 예를 들면, 보조금 프로그램을 발표할 때에 PDA는 응급 보조금과 장기 회복 보조금을



구분해왔다.

"그런 구분을 하는 데에 어려움 중 하나는 COVID가 시작된 지 수 개월이 지났어도 소외된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위험과 응급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크레비엘이 말했다. "그들은 실제로 회복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직업을 잃은 상태였고 병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성한 다음 단계의 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단기 지원입니다. 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아주 기본적인 필요들만을 위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할 자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부족하다.

"이 사례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필요 때문에, 많은 기관들이 자원과 지원가능한 파트너를 배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PDA가 먼저 찾아와 그들의 프로젝트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들은 정말 고마워했습니다"라고 곤잘레스-카스티요 목사가 말했다. "기금을 배당하는 것은 축복이었으며 어떤 경우에는 많은 기관들이

그들의 지역사회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크라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수많은 공동체들이 자신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참여했습니다. 전 세계와 미국의 지도자들과 공동체들은 자신들의 상황 너머 외부 세계로 눈을 돌려, 더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협력하며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은 공동체들은 앞장서서 그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그 경험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 특권입니다."

농장 노동자들 및 가족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는 임모칼레 노동 조합

장로교 재난 지원 프로그램 기후 관련 재난에 대응하다

달라 카터 | 장로교 뉴스 서비스

2020년 미국과 세계 도처에서에서 기후 변화가 자연재해를 지속적으로 가속화함에 따라 장로교 재난 지원프로그램은 피해 지역의 사람들에게 도움과 희망을 주기위해 파트너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고 있다.

국내 최전선에서, 서부의 산불, 남동부의 허리케인, 중서부의 치명적인 폭풍은 개인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들이다.

"항상 화재가 나는 계절이 있습니다. 허리케인이 오는 시기도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후 변화가 분명 산불이 나는 계절과 허리케인이 오는 계절을 더 심하게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짐 커크 목사(장로교 재난 지원프로그램의 미국재난 대응 담당)가 말했다. 예를 들면, "루이지애나 남부에는 일곱 번의 열대성 폭풍과 허리케인, 즉 이름이 붙여진 일곱 개의 폭풍이 상륙했다."

2020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여행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교 재난 지원 프로그램은 산불에 영향을 받는 오래곤주 캐스케이드 노회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기금과 가상 공간의 인력배치를 활용할 수 있었다.

"(미 전역에서) 온라인 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우리는 온라인 상의 플랫폼이 가능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었을 방법으로 의미있게 재난 상황에 관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커크는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15년 전이었다면, 전화 회의 밖에는 이용할 수 없었을 것이지요."

미국에서, 장로교 재난 지원 프로그램의 일은 재난 상황에 충격을 받는 지역 및 인근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도움을 받는데, 이들은 숙박 시설이나 편의 시설이 필요치 않은 사람들로 폭풍후 청소작업과

같은 일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커크는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은 원격으로는 불가능한 지원을 안전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할 수 있었어요" 라고 전한다.

미국 외의 지역에서, 장로교 재난 지원 프로그램은 자연 재해에 대항하기 위해 노력하는 협력자들과 공동체들을 돕기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이 자연재해는 급격한 주기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남미와 중미에 있는 협력자들과 얘기해 보면, 같은 해에 아주 여러 번 허리케인이 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라고 에드윈 곤잘레스-카스티요 목사(남미 및 캐리비안 지역의 재난 대응 담당)는 말한다. "지난해는 엄청난 재난이 많고, 그 충격이 대단했어요."

허리케인 아이오타와 에타같은 주요한 폭풍외에도 작은 재난들이 있었고, "홍수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라고 곤잘레스-카스티요는 전한다.

장로교 재난 지원 프로그램의 국제프로그램 행정담당인 데이나 올리버와 곤잘레스-카스티요는 가뭄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한다.

곤잘레스-카스티요는 "한 해의 어떤 시기 동안 심각한 가뭄이 오고 나서 같은 해 다른 시기에 심한 홍수가 와요" 라고 말했다. "남미와 캐리비안의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은 들판에서 모을 수 있는 곡식과 팔 것들에 의지해서 생존하는데, 자연재해가 닥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먹고 살게 없거나 팔아서 가족을 부양할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장로교 기아 프로그램에 따르면, 이런 재난들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욱 큰 충격을 안겨 준다. 가난과 굶주림에 맞서는 사람들이다. "환경 문제가 저소득층과 소수

인종 지역에 타격을 주는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환경 문제를 논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모듈린 펠프스(PHP의 지구환경 보존 프로그램 담당자)가 프리스비테리언 뉴스 서비스와의 인터뷰에서 9월에 말했다. "우리는 기후 변화가 흑인, 원주민과 소수인종들이 사는 지역 및 빈민 지역에 다른 어떤 지역보다 더 깊은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훨씬 떨어집니다"라고 올리버와 곤잘레스-카스티요는 말한다.

바이러스의 확대를 늦춰야 한다고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재난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터져 나오는 말은 "집에 머물라구요, 그런데 우리 집이 없어요." 곤잘레스 카스티요는 말한다. "갈 수 있는 피난처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는 사람들이 코비드 19에 감염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머무르라고 하지만 우리 집은 재난에 타격을 받아 안전하지 않거나 주변엔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세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끔찍한 일들을 한꺼번에 겪고 있어요."

미국 장로교 총회 선교국의 커뮤니케이션 전략가 리치 코플리가 이 글을 기고했다.



화재 구역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



온두라스에서 생존자들이
허리케인 에타로 인한
홍수로부터 대피하고 있다.

EARTH CARE CONCERNS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면 PCUSA.ORG/CLIMATE 와 PCUSA.ORG/CCC 의 CLIMATE CARE CHALLENGE를 방문하면 됩니다.

관계 형성에서부터 복구에 이르기까지, 장로교 재난 지원 프로그램은 준비를 매우 강조함

리치 코플리

2017년 여름, 허리케인 어마가 푸에르토리코를 향해 가고 있을 무렵, 장로교 재난 지원 프로그램의 직원은 섬에 있는 장로교 지도자들과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다.

PDA는 드디어 산 후안 노회 서기인 에드윈 곤잘레스-카스티요 목사와 연락이 닿았다. 교단은 폭풍에 대비해 필요한 어떤 것이라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허리케인 어마가 섬의 북쪽 가장자리를 지나고 난 몇 주 후, 허리케인 마리아가 푸에르토리코를 직접 강타해서 더이상 연락을 할 수 없었다. 그 일로 인해 유대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 후로 해를 거듭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다행히도 우리 모두 쉽게 연락할 수 있어요"라고 짐 커크 목사(전국 재난대응 담당)가 말했다. "우리는 정책과, 프로토콜, 절차, 그리고 상황

파악력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노회와 대회 내에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최근 몇 년간, 장로교 재난 지원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에 걸쳐, 또 전 세계에 걸쳐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해 왔다. 이로써 참사에 대한 대응은 단순히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내는 관계가 아니라 굳건하고 믿음직한, 계속되는 협력관계가 되었다. 지속적인 관계를 수립해 유지함으로써, 장로교 재난 지원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 함께 재난에 대비하고 재난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즉각적인 필요에 먼저 응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기적인 회복을 위해 일하고, 이를 넘어 재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라고 커크는 말한다. "즉각적인 구호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은 먹을 것과 쉴 곳, 그리고 관심이 시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러한 일을 하는 조직들에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일단 복구가 잘 진행되는 중이라면 피해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시 더 잘 복구하기 위한 방법을 명확하게 하면서, 또한 가용한 자원들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잘 알고 있지요."

커크는 바로 거기에서 장로교 재난지원 프로그램과 위대한 나눔의 실천 특별 헌금에 기부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헌금이 진정으로 장기적인 혜택이 되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키노 국경 사역



ACT/선 호기



ACT/선 호카

온두라스에서 허리케인 에타의 생존자들이 잔해를 옮기고 있다.

이 주제는 그의 관심을 다시 푸에르토리코 동쪽 해안에 인접해 있는 비에케스 섬으로 되돌리고 있다. 허리케인 마리아가 지나가고 나서 며칠 안되어, 이 섬의 전기가 끊어지면서 본토와의 연결도 끊어졌다. 하지만 이제, 섬에 있는 협력자들은 장로교 재난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커뮤니케이션을 돕고, 음식과 약품을 냉장보관하게 해주는 태양열 응급 전기 용품들을 만들고 있다.

산 후안의 본토에는, 몇몇 가정들은 폭풍이 지난 몇 년 후에도 여전히 방수천으로 된 지붕을 가지고 있었다. 장로교 재난 지원 프로그램은 까노 마르틴 페냐 공동체 토지 신탁과 협력하여 허리케인 정도의 풍력에 견디는 견고한 지붕을 공급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강풍이 섬에 상륙해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그 방수천 지붕은 2017년의 현금이 2021년도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여전히 유익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커크는 말했다.

국제 재난 대응에는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상황에 대한 유연성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장로교 재난 지원 프로그램은 아프리카 지역 카메룬에서 활동하는 RELUFA와 같이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협력단체와 함께 사역해왔는데, 최근 몇 년간 이들은 활동의 초점을 기아구제 프로그램에서 난민 지원사역으로 변경했다고 데이나 올리버, 국제 프로그램 행정담당자는 말하고 있다.

"쉐쿠 실라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지역스태프로, 그들과 함께 인도주의적인 대응 능력을 만들어 왔어요"라고 올리버가 말했다. "RELUFA와 같은 많은 협력자들은 수년에 걸쳐 그들이 봉사하는 지역의 필요에 따라 활동의 중심을 옮겨 왔습니다. 장로교 재난 지원 프로그램은 수년 동안 훈련 및 능력 배양 방법들을 통해서 차이를 메우기 위해 협력자들과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UFA에서 나온 한 보고서에서, 코디네이터인 제프 바멘조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인도주의적 응급 구호시에 장로교 재난 지원 프로그램과 협력했던 것은 RELUFA가 카메룬에서 해온 일 중 중요하고 대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양식,



FEMA/조슬린 아퀴스티노

영양식, 소규모 상거래 기금, 취약한 계층을 위한 기술 훈련을 지원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RELUFA의 스태프들은 훈련을 통해 유익을 얻었고, 인도적 지원 사업을 위한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이는 RELUFA가 조직으로서 행하고 있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수잔 크레비엘(난민 및 망명자 사역 담당)은 장로교 재난 지원 프로그램의 난민 선교 협력자들이 과거 수년 동안 많은 정책 변화와 가장 최근의 코비드 19에 대응하여 어떻게 활동의 방향을 전환해 왔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샌 페르난도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샌 페르난도 밸리 난민 아동센터(SFVRCC)는 중앙아메리카에서 로스 엔젤레스 카운티로 피난처를 찾아 위험한 여행을 했던 수백명의 보호자 없는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받아 들이고 있어요. 센터는 비슷한 경험이 있으나 이후 자신들의 행복한 가족과 가정, 그리고 삶을 찾게 된 사람과 난민들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생존에 필수적인 서비스들을 제공해서 미국 생활의 적응을 도왔죠.

분명히 난민 아동 센터는 팬데믹을 결코 예측할 수 없었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그들이 봉사해야 할 대상을 획기적으로 바꿨다는 사실은 단체의 헌신적인 노력과 그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코비드 19 때문에 샌 페르난도 밸리 난민 아동센터는 피해 받기 쉬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더 열심히, 더 창의적으로 일해야 했죠. 서로 연결된 상태로 있는 것, 정신적, 정서적, 법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 그리고 재정적으로 가족들을 돕는 것은 난민센터의 스태프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소명을 받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두가 다 집에 머무는 동안에 말이죠."

중동지역에서, 장로교 재난 지원 프로그램과 오랜 관계를 유지해온 시리아의 협력자들은 미국의 제재와 코비드 19로 인해 경제가 100년 역사상 최악의 상황인 가운데, 이와 같은 관계로 인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교회와 교회의 협력자들 덕분에 음식을 구할 수 있어요" 라고 시리아의 라타키아 장로교회의 살렘 한나 목사가

재난 뒤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파란 방수천으로 된 지붕들을 볼 수 있다.



시작될 때도 사정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하지만, 상호관계는 이전의 경험을 통해 여전히 굳건하고, 이 사실은 코비드 19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다.

마리아와 곤잘레스-카스티요는 남미 카리브해 지역 재난대응 담당으로 장로교 재난 지원 프로그램에 함께 한 이후, 지난 수개월 동안 지역 사람들을 만나 연락망을 만들고, 때로는 위대한 나눔의 실천 특별 현금, 장로교 기아대책 프로그램, 인적자원 개발 위원회 같은 기존 단체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코비드가 발생했을 때, 기다리면서 협력자들을 찾을 필요가 없었어요" 곤잘레스-카스티요의 전언이다. "그들에게 연락해서 '여러분 지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협력자들은 우리와 처음 함께 일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들을 요청해 왔어요. 어떤 이들은 인적자원 개발 위원회 혹은 기아대책 프로그램과 관계된 사람들이었고, 그들중 몇몇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당시 함께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없었어요."

시리아에서 중앙아메리카까지, 장로교 재난 지원 프로그램은 장로교 세계선교회와도 협력해 왔는데 이 단체는 중미 지역에 연속적인 태풍이 왔을 때 도움을 준 바 있다. 스스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곤잘레스-카스티요는 장로교 재난 지원 프로그램이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선교 동역자들과 정기적인 연락을 취하고 있다.

"때로는 그저 전화상 듣는 것으로 알 뿐이고 신문에서 사정을 읽기도 해요. 그렇지만 상황의 배경은 알 수 없죠"라고 곤잘레스-카스티요가 말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그 지역에 있다면 상황에 더 잘 대처할 텐데요."

커크는 미국에서도 노회들이 재난을 대비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이는 사전에 적극적인 재해 복구와 재해예방 태세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던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같은 중대 재해를 겪고 나서다.

푸에르토리코의 비에케스 섬에는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길들이 많아, 응급 상황에서 대응이 어렵다. 한가지 장기 프로젝트는 이런 거리들에 이름을 정하고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말했다. "장로교 재난 지원 프로그램, 지역교류 재단, 유럽 교회들, 미국 교회들은 우리의 대회와 사람들 편에서 서서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시리아와 다마스쿠스를 둘러싸고 정파들 간의 갈등이 있을 때에도 이들은 우리를 지원하고 방문했으며 이 도시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혼자서 아님을 경험했지요. 우리에게 재정적으로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주 우리를 방문해 이야기 나누고, 우리 사정을 듣고 전해주었죠.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 그리고 그들이 주는 도움을 통해, 하나님께 계심을 경험했어요."

코비드 19로 인해 장로교 재난 지원 프로그램의 선교 방문이 제한되었는데, 사실 교단 직원들은 2020년의 대부분의 기간동안 여행이 금지되었고, 2021년이



스캇 파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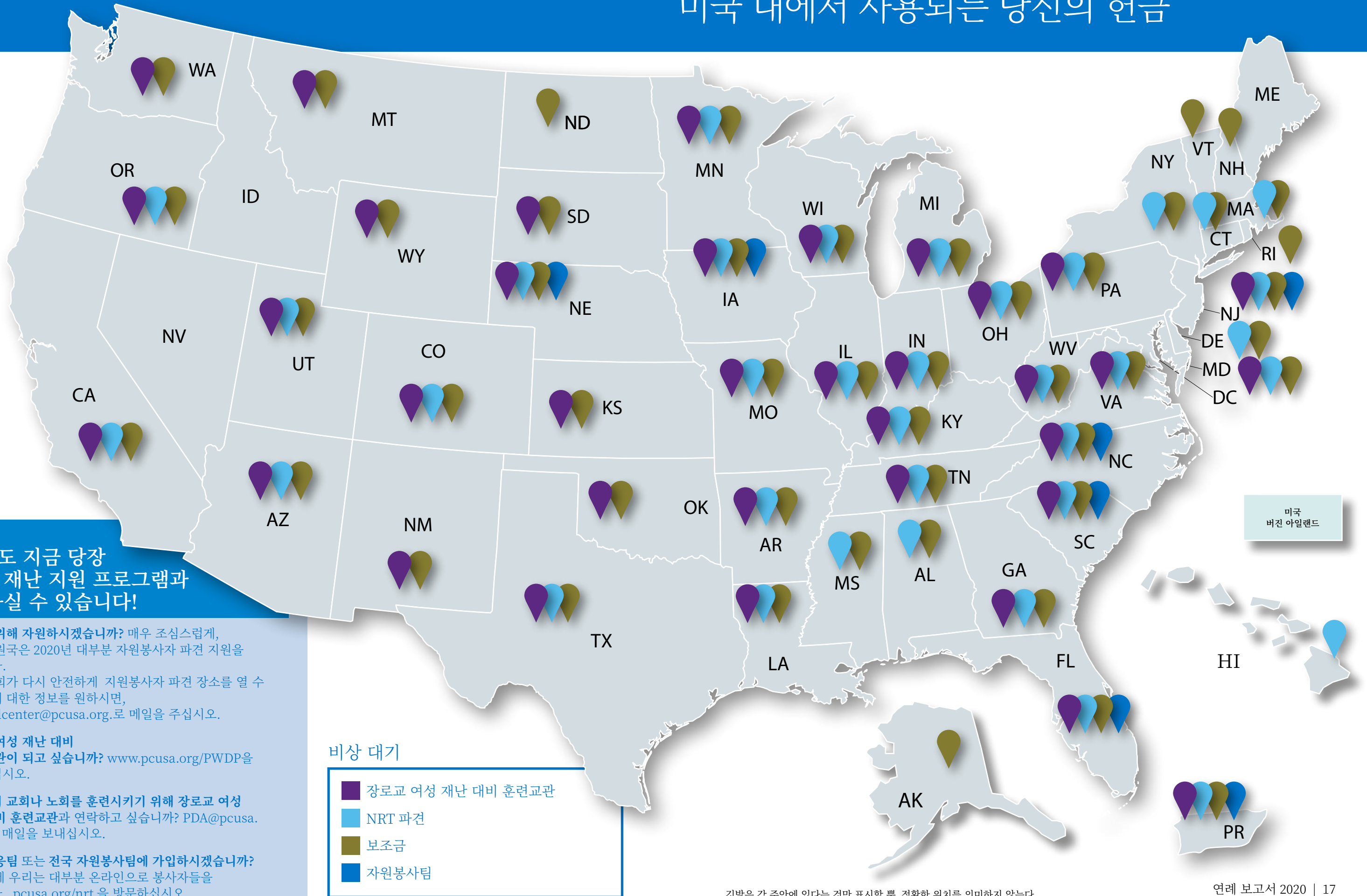
커크에 따르면 "노회 내 재난대응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 재난 지원 프로그램이 더 시기 적절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한다. "장로교 재난 지원 프로그램은 위원회 설치에 주력해왔는데 이러한 노력들은 분명 2017년 허리케인 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대회와 노회같은 중간공의회와 협력해서 지역의 재난 준비태세와 대응 체계의 개발을 도울 것입니다."

기록적인 수의 허리케인, 산불, 자연재해에서 보듯이 2020년은 재해대비 태세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준 한 해였다.

"역사적인 태풍이 온 시기였고, 역사에 남을 만한 산불도 온 계절이었죠" 라고 커크는 말한다. "그리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은 계속될 겁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일을 하고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정신나간 짓의 의미를 알고 있지요. 더 현명해져야 하고 재난지역이 더 잘 회복할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2017년 장로교 재난 지원 프로그램이 방문했을 당시, 학교에 있는 시리아 어린이들

미국 내에서 사용되는 당신의 헌금



여러분도 지금 당장 장로교 재난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재건을 위해 자원하시겠습니까? 매우 조심스럽게, 재난 지원국은 2020년 대부분 자원봉사자 파견 지원을 중단했다. 언제 저희가 다시 안전하게 지원봉사자 파견 장소를 열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면, pda.callcenter@pcusa.org로 메일을 주십시오.

장로교 여성 재난 대비 훈련 교관이 되고 싶습니까? www.pcusa.org/PWDP을 방문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나 노회를 훈련시키기 위해 **장로교 여성 재난 대비 훈련교관**과 연락하고 싶습니까? PDA@pcusa.org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전국 대응팀 또는 전국 자원봉사팀에 가입하시겠습니까? 2020년에 우리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봉사자들을 파견했다. pcusa.org/nrt 을 방문하십시오.

비상 대기

- 장로교 여성 재난 대비 훈련교관
- NRT 파견
- 보조금
- 자원봉사팀


깃발은 각 주안에 있다는 것만 표시할 뿐, 정확한 위치를 의미하지 않는다.


사실과 수치


미국


전달 기금 총액: \$4,918,829





 **허리케인**
보조금 60회, NRT 파견 14회*


 **홍수**
보조금 5회, NRT 파견 2회


 **허리케인에 의한 재해/상처**
보조금 1회, NRT 파견 5회


 **토네이도**
보조금 7회, NRT 파견 12회

 **코로나-19:**
보조금 380회, NRT 파견 137회 (영적 지도자
회복 탄력성 웹 세미나 진행을 위해 파견됨)

 **화재**
보조금 16회, NRT 파견 21회

 **드레초 폭풍**
보조금 11회, NRT 파견 7회

 **난민 사역**
보조금 12회, NRT 파견 5회

 **지진**
보조금 7회, NRT 파견 4회



2020년도에 우리는 재해가 지나간 후 이웃을 안전하게
돕고자 하는 장로교인들에게서 감동을 받았다. "출퇴근
자원봉사자"는 재해 복구를 하려는 지역에서 차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자원봉사자를 일컫는다.
복구 지역에서 숙박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는 코비드-
19 규칙을 준수하면서 일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봄
토네이도가 덮친 사우스 캐롤라이나 지역에서와 8월
데레초 폭풍이 온 아이오와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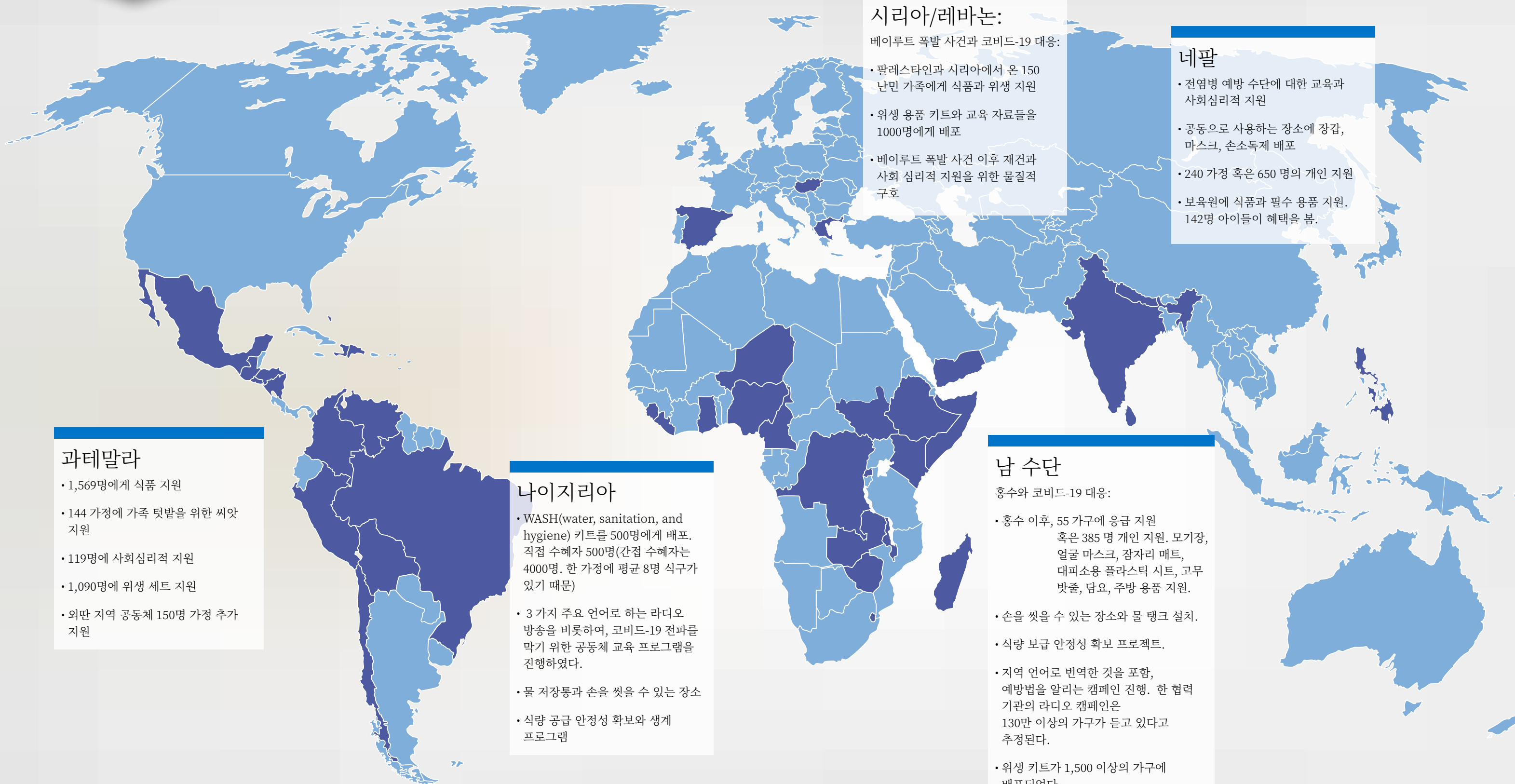
*PDA 전국 대응팀은 재난 발생 후 현장에서 PDA와 미국장로교를 대표해서 활동하는 약 100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그들은 재난이 교회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노회와 대회를
지원하고, 노회와 복구 자원을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2020년 동안, 대부분 NRT 구성원은 온라인
상으로 파견되어 일했다.

이 페이지에서는 올해 프로젝트 중 일부만을 집중 조명하였다. 보다 많은 정보를 보려면, pcusa.org/PDA 를 방문하세요.

해외에서 사용되는 당신의 헌금

전달 기금 총액: \$1,609,486.76

2020 년에 PDA는 미국 이외의 56 개국에서 재난에 대한 지원을 했다. 진한 파란색은 원조를 받은 국가를 나타낸다.



과테말라

- 1,569명에게 식품 지원
- 144 가정에 가족 텃밭을 위한 씨앗 지원
- 119명에 사회심리적 지원
- 1,090명에 위생 세트 지원
- 외딴 지역 공동체 150명 가정 추가 지원

나이지리아

- WASH(water, sanitation, and hygiene) 키트를 500명에게 배포. 직접 수혜자 500명(간접 수혜자는 4000명. 한 가정에 평균 8명 식구가 있기 때문)
- 3 가지 주요 언어로 하는 라디오 방송을 비롯하여, 코비드-19 전파를 막기 위한 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 물 저장통과 손을 씻을 수 있는 장소
- 식량 공급 안정성 확보와 생계 프로그램

시리아/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사건과 코비드-19 대응:

- 팔레스타인과 시리아에서 온 150 난민 가족에게 식품과 위생 지원
- 위생 용품 키트와 교육 자료들을 1000명에게 배포
- 베이루트 폭발 사건 이후 재건과 사회 심리적 지원을 위한 물질적 구호

네팔

- 전염병 예방 수단에 대한 교육과 사회심리적 지원
-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에 장갑, 마스크, 손소독제 배포
- 240 가정 혹은 650 명의 개인 지원
- 보육원에 식품과 필수 용품 지원. 142명 아이들이 혜택을 봄.

남 수단

홍수와 코비드-19 대응:

- 홍수 이후, 55 가구에 응급 지원 혹은 385 명 개인 지원. 모기장, 얼굴 마스크, 잠자리 매트, 대피소용 플라스틱 시트, 고무 밧줄, 담요, 주방 용품 지원.
- 손을 씻을 수 있는 장소와 물 탱크 설치.
- 식량 보급 안정성 확보 프로젝트.
- 지역 언어로 번역한 것을 포함, 예방법을 알리는 캠페인 진행. 한 협력 기관의 라디오 캠페인은 130만 이상의 가구가 듣고 있다고 추정된다.
- 위생 키트가 1,500 이상의 가구에 배포되었다.

찾으시는 주제에 대한 영화를 보셨나요? 이야기 사역은 그동안 만든 자료의 카탈로그를 만들었다.

미국장로교 교회가 총기 폭력에 대해 토론하고 싶다면, 미국장로교 재난 지원국의 스토리 제작부가 만든 영화를 추천합니다. "방아쇠: 총기 폭력의 파급 효과"(2014)입니다.

이민 문제를 토론하려 하나요? 재난 지원국은 이민자 수용소 현실을 담은 "박스에 갇히다"(2016)을 포함하여 몇몇 영화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나요? 그러면 "플린트: 독극물이 퍼진 미국 도시"(2019)를 꼭 보셔야 합니다. 2021년 초 사람들은 다시 환경 문제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종차별에 관한 영화를 찾으시나요? 미국장로교 선교국 및 총회 사무국과 협력하여 미국 장로교는 작년 새로운 영상 시리즈를 내놓았습니다. "파동을 일으키다: 인종차별과 우월주의 근절을 위한 대화"가 그것입니다. 이야기 사역 직원인 데이비드 반하트는 스토리 프로덕션이 만든 영화 전부는 아니더라도 꽤 많은 영화에 인종차별이라는 주제가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서, 반하트는 중요한 영화 카탈로그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이는 사역과 영화 제작이라는 두 가지 열정에서 비롯된 역작이며, 수년간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 PDA에서 근무한 경험도 녹아 있다.

"저는 우리 믿음이 이야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반하트가 말했다. "이야기는 예수님 사역과 전도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전에 직면하셨을 때, 힘드실 때, 소외나 비인간화의 문제를 제기하려 하실 때, 예수님은 이야기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인으로서 우리의 소명 중 하나는 이야기의 렌즈와 내러티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서로 연결되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PDA 디렉터이자 목사인 로리 크라우스 박사는 PDA의 사역과 교회에서 다큐멘터리 영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

"PDA의 이야기 사역부는 생존자와 그들 공동체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할 것이며, 생존자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존엄성을 살릴 여지를 제공합니다. 이들이 누군가 동정과 자비의 대상으로 비취지지 않습니다"라고 크라우스는 전한다. "이야기 사역부는 얽히고 설킨 맥락 속에서 이야기를 탐구하며, 동반자이자 지지자로서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켜보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라고 크라우스는 말한다.

"이 영화들과 함께 제공되는 학습서는 교회와 공동체가 생존자들 곁에 서고, 생존자 공동체를 존중하고 변혁적인 방식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영화들은 우리 눈과 마음에 체계적인 문화적 변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PDA는 현재 벌어지는 재난의 영향을 경감하고, 미래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변화를 꾀하고, 생존자의 희망과 요구와 이야기를 중심에 놓고자 합니다. 재난 대응과 복구의 전체 주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PDA의 헌신에 있어,



리치 코플리

이야기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는 영화 속에 진실을 담는데 꼭 필요하며, 영화의 타당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방아쇠"는 미국의 악명높은 총기 난사사건을 다룬다. 여기에는 학생과 교직원 17명의 생명을 앗아간 2018년 플로리다 파크랜드의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 사건과 2017년 라스베이거스 콘서트장에서 60명을 죽이고 411명을 다치게 한 총기 사건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 영화는 이 유명 사건들에 관한 것이 아니다.

"방아쇠"는 총기 폭력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룬 영화입니다"라고 반하트가 말했다.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에 대해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매일 총기 사건을 뉴스 제목에서 보고 종종 쑥 보고 지나친다. 뉴스 제목에 가려진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집에서 애도하며 우는 형제들, 이러한 끔찍한 사건을 매일 목격하는 응급실 의사, 학생들을 잃은 선생님에 대해서 말이다. 한 번의 총기 사건이 연쇄 효과를 일으켜 수백명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것이 뉴스 제목 뒤에 숨겨진 이야기이다. 우리가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화 "방아쇠"를 만들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자 했다.

반하트가 다가간 대부분의 상황은 신문 일 면에 오를만큼 심각한 사건이었지만, 그와 편집담당 스콧 랜싱은 궁극적으로 말하려는 이야기에 이 사건들이 덧칠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들은 또한 이야기되지 않거나 잘 언급되지 않는 이야기들에 매우 관심이 있었다고 말했다. 중요하지만 전국 관객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이야기 말이다.

그들이 다루고자 하는 공동체를 방문할 때면, 대부분 간단한 대화로 만남을 시작한다. 카메라 없이 말이다. 그러면 카메라가 작동하고 조명이 들어올 때라도, 인터뷰는 깊은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 2020년, 코로나 사태가 반하트나 미국장로교 전 직원이 활동하지 못하게 하였지만 이러한 과정은 계속되었다.

반하트는 몇몇 프로젝트를 살피고 모든 것이 중단되기 전인 2020년 초 초기 인터뷰를 진행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고 카메라 뒤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을 위해 프로젝트들을 준비했다.

"좁은 인터뷰 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어려웠습니다"라고 반하트가 말했다. "전과는 달랐죠. 누군가와 한 공간에 있고 대화를 할 때는 말로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공유할 수 있는 안정된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죠.

"침실이나 거실에 앉아서 이러한 일을 하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결코 같지 않은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였고, 온라인 촬영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이니까요."

코로나는 영화 제작 환경 뿐 아니라, 영화 배급 환경도 바꾸어 놓았다. 많은 극장과 전시 공간이 문을 닫았고 스트리밍 서비스가 중심으로 떠올랐다. "플린트"와 "방아쇠"를 예로 들면, 이들은 아마존 프라임이나 다른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시청이 가능하다. 반하트는 영화가 파급력을 가지려면, 그들은 배급 과정이 변화하는 것도 잘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나 이 영화가 주류 영화제나 다큐멘터리 공동체에서 성공적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는 그동안의 일에 대한 보상이지만 여전히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고 반하트는 말했다.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자료로서 이 영화들에 집중하고 공동체의 참여를 위해 사용되도록 할 뿐입니다"라고 그가 말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 영화들이 교회와 공동체가 이러한 문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자료이길 바랍니다.

난민 사역: 믿음 안에서 한 발 내딛기

수잔 크리비얼, 제니퍼 락커드

자신의 나라와 집을 떠나야만 했던 이민자들은 종종 자신들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여행길을 시작한다.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은 물리적인 루트가 확실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또다른 여정은 훨씬 불확실하다는 것을 안다.

여정이 진행 중이거나 종착지에 도착했거나 간에 난민이나 이민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일종의 여행을 시작한다. 잠깐의 휴식을 제공하거나, 지나가는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새로운 지역 사회에 정착하는 이를 돕거나,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길과 여정은 서로 얽힌다.

교단으로부터 오는 지원을 제공하는 PDA는 이러한 여행의 장거리 파트너이다. 유리한 다른 지점에서 있으면서 멀리서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장거리라고 불린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협력기관들과 동행하기 때문에, 즉 그들의 사역이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진화하는 동안 그들과 함께 "먼 거리를 가기" 때문에, 장거리라고 불린다는 점이다.

작년 우리 모두는 이재민과 코로나가 합쳐진 위협에 맞서기 위해 위협을 감수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모색을 통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도 했고 기존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도 했다. 이것은 어떻게 언제 재정적, 인적 자원을 사용해야 하는지 우선 순위를 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는 일하시는 주님의 손을 보았다. 다음에 이어지는 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난민 사역이 계속 진화하고, PDA의 사역 또한 그들과 함께 진화하는지를 나누려 한다.

난민 사역의 진화

남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랜 사역 협력처는 PDA가 난민과 망명자 사역에 재투자한 2014년부터 확연히 성장했다. 2014년

가을 미국의 관심은 남쪽 국경에 도착한 중앙 아메리카 출신 젊은 가족과 홀로 온 어린이들에 모아졌다. 남서부에 있는 미국장로교인들의 조언에 따라, PDA는 LA 지역 태평양 노회들과 직접적으로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PDA의 지원과 격려로 태평양 노회는 이 새로운 사역에 발걸음을 내디뎠다.

우리가 보다 많이 참여하게 되자, 다른 노회들도 자신들의 지역에서 PDA가 난민과 망명자 사역을 확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2019년경에 PDA는 로스란초스, 샌 가브리엘, 샌 페르난도 밸리 노회와 협력관계를 맺었고, 2020년에는 리버사이드 노회와도 협력을 맺었다.

이 각각의 다섯 노회는 다른 우선 순위와 필요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확연히 구분되는 전략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태평양 노회는 장로교인이 종교간 협력을 지지하도록 이끌었다. 이 노회는 교회가 망명 신청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준비시켜주는 '망명 신청자를 위한 범교단 협력회(ECAS)'를 주도하였다. 샌 가브리엘 노회는 교육에 집중하고 이민 사역에 참여하는 장로교회 수를 늘리고 있었다. 태평양 노회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구치소 방문에 동참하고 망명 신청자들과 함께할 호스트 교회를 만들었다. 리버사이드 노회의 참여는 그 구역 내에 위치한 아델란토 구금 센터 때문에 무척 중요했다. 이 노회는 다른 노회 자원봉사자 이동을 지원했고, 구금에서 풀려난 이들에게 전통적인 핵심 지원을 제공했다. 샌 페르난도 같은 다른 노회들은 기존 사역과 함께 파트너들을 지원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으로 섬겼다. PDA는 각 노회를 지원하고 전례없는 요구와 사역의 기회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파트너들

2-7 페이지에서 집중조명되었던 것처럼, 이민자 공동체의 건강과 경제적 생존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은 이민 교회나



알리시아 마사아스

알리시아 마사아스

스티븐 멜키제티안

부록 빈코브스키



수전 크레비얼

2018년 무슬림 금지에 대한 항의

예배 공동체로부터의 지원금 신청 비중이 늘어난 데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코비드-19 지원금 주기와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은 앞으로 우리 사역에 도움이 될 것이다.

코비드-19 만이 2020년 주요 뉴스거리가 아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 이후 전국적으로 인종 문제 정의와 시민 권리에 대한 시위가 급격히 늘어났고, 그의 죽음은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 운동을 전세계적으로 확산시켰다. 여름이 깊어지면서, 미국은 오랫동안 만연해있던 인종 차별 문제를 해결하려고 더욱 노력을 기울였다. 인종 차별이 너무도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인종간 불평등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으며, 거주, 교육, 범죄 정의, 직업, 의료, 이민 정책에서 차별이 생겨났다. 인종적 정의에 대한 요구는 PDA가 이민 정책에 미치는 인종차별의 영향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요구이기도 했다. 수년 동안 이민 단속에 있어서 언론의 관심은 주로 멕시코인과 중앙 아메리카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교육과 법률 서비스를 위한 난민과 이민자 센터가 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3월에서 6월 사이 이민 세관 단속국(ICE)에 의해 구금을 당한 가족 절반은 아이티 출신이었다. 아이티 인들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수 있는 경우에도, 이 보석금은 다른 이민자보다 평균 54% 더 높아 아이티 인이 감옥에 남을 가능성이 더 컸다. 실제로 2020년 가장 많이 구금된 국민은 아이티인이었다. 그리고 구금 자체도 결코 좋은 경험이 아니지만, ICE는 특히나 흑인 이민자에게 강압적이다. 흑인 이민자들은 독방 감옥에 갈 확률이 6배나 된다.¹ 그리고 추방에 직면한 이들의 20 퍼센트가 흑인 이민자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추방은 경범죄로 인한 것이다.²

각주

1. 프랑코, 팔터, 라이터
2. BLACK ALLIANCE FOR JUST IMMIGRATION

범종교 이민 연합 회원으로서, PDA(그리고 다른 미국장로교 기관들)는 가족 구금을 종식하고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Haitian Bridge Alliance'와 'Shut Down Berks Interfaith Witness'를 지지한다. 우리는 조지아 주에 있는 이민 구치소를 없애기 위한 범종교적인 노력에 힘을 보탤다. 조지아 주에서는 ICE와 계약한 감옥이 미국 내 최고 코비드-19 감염률을 나타냈고, 의료적인 조치도 제대로 취해지지 않았다. 두 경우 모두에서 유색 인종 이민자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다.

구금 중일 때에나 미국으로 석방되었을 때에나, 흑인과 중앙 아메리카 난민들은 또다른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에 우리는 이민자 중심이며 이민자가 이끌고 이민자가 참여하는 ("우리 참여 없이 우리를 위할 수는 없습니다" ("not for us without us" -역자 주: 영어의 '우리(us)'를 사용해 '미국(US)'을 암시함.)) 모델을 가지고 있는 ECAS와 같은 신앙 사역을 지원한다. 이러한 모델은 망명자를 맞아들이는 미국 내 기독교의 백인 우월주의나 백인 구원자 모델에 도전을 하고 있다.

새로운 지침과 격려

성경 속 많은 구절에 이방인을 반갑게 맞이하라는 소명이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미국으로 오는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를 반갑게 맞아들이는 일이 지금도 교회, 유대교 회당, 범교회 및 범종교 단체에 뿌리를 두고 진행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한 때는 국가적인 자부심이며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이던 것, 즉 자유롭게 숨쉬고 싶어하는 이들을 포용하는 것이 이제는 논쟁의 주제가 되었다. 현재의 세계에서 우리는 반갑게 맞이하는 일이 쉽게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마음을 먹고 준비해야 하는 일이 되었다.

2020년 말이 다가오자, 조만간 미국 난민 정착 프로그램을 다시 세울 기회가 올 것이라는 점, 그리고 발언을 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난민들과 함께할 환영팀을 조직하고 싶어하는 교회들에 있어서 어디서 시작해야할지를 아는 것은 도전적인 일이었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방향을 잡고자 하는 교회들을 지원하기 위해 PDA는 환영 준비³를 새로 만들었다. 이는 난민 관련 여러 사항들을 탐구하고 교회가 난민 도착을 위한 준비를 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설명하는 지침서이다. 이러한 기초 작업을 하는 것은 각 그룹이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평가하도록 돕는다. 또한 섬기려 하는 상대방으로부터 배우고 그들의 시각으로 인도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문화를 넘어서는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망명자를 구하기

지난 4년 간 이어진 미국 망명 정책의 변화는 법적 보호가 필요한 진정한 난민들에게 여러 장벽을 새로 만들었다. 이 대대적인 변화로 인해 개별 이야기를 적절하게 고려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미국이나 멕시코 구금 센터 안에서 해를 입을 위험이 높아졌다.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이 생존하고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미국에서의 삶이 간절했기에, 매우 고된 여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부분은 그들의 나라와 멕시코에서 위협, 폭력, 학대를 경험했다. 이들을 강제로 이들의 나라로 돌려보낸다면, 죽음을 당할 확률이 매우 높다.

미국 정부가 망명을 찾는 이들의 기본 인권을 저버리는 동안, 키노 국경 이니셔티브(KBI)는 '망명자 구하기' 캠페인의 일부로서 증인이 될 수 있는 독특한 방식을 만들어 냈다. 이 이니셔티브는 애리조나 노갈레스와 멕시코 노갈레스(합쳐서 암보그 노갈레스라고도 불림)이라는 쌍둥이 도시 안에 자리하고 있다. 2009년 6개의 가톨릭 협력 그룹에 의해 국경 양쪽에 설립된 KBI는 이민자들이 당장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 또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및 이민 정책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양국

간 유대의 정신을 지키도록 촉구하고 있다. 2020년 드 크리스토 노회와 그랜드 캐년 노회 소속 장로교인들을 포함 몇몇 범교회적, 범종교적 협력 단체들이 지지를 표명하며 KBI에 합류하였다.

망명을 원하지만 수개월째 멕시코에 잡혀 있는 사람들을 주로 돌보면서, KBI '망명자 구하기' 연합은 국경에 세워진 담 양쪽에서 증언들을 기록하고 크게 읽어주는 일을 한다. 이 증언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나누어지고 있어서, 정계에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누구나 그들이 겪은 고난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다. 2020년 8월 첫번째 이벤트를 시작으로 KBI의 '망명 구하기' 이벤트는 암보스 노갈레스에서 라이브로 방송되었고 지난 이벤트 녹화본은 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다. 암보스 노갈레스에서 KBI가 수집한 증언들은 투산에 있는 유대 역사 박물관 내 홀로코스트 역사 센터의 기록 보관소 망명 증언 전시에 덧붙여질 것이다.

결론

가장 안전한 시기에도 삶은 위험에 처할 수 있지만, 2020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1월부터 시작하여 폭탄같이 쏟아지는 나쁜 뉴스들은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트렸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살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을 부양할 직업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전염병을 대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백인이 아닌 형제 자매들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인종차별을 피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국가적 어려움에서 눈을 돌려, 이민과 이민자의 정착에 대한 정부의 결정에 집중하는 것은 반직관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유한 인류애를 인정하고 구금에서 풀려나기를 기다리는 모든 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데 더 나은 시기는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미국에서 더 나은 삶을 누리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PDA는 여러분이 저희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저희는 난민 가족에 대해서 필수품 지급 등의 인도적 지원과 법적인 안내와 가족 재상봉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보다 인도적인 대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주

³ '환영 준비' 가이드는 PCUSA.ORG/PDA/REFUGEE의 난민 정착 섹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리차드 콜드웰

리차드 콜드웰

존 앵글라트

ACT ALLIANCE
NCCP

ACT/NCCP

ACT/MECC

2020년을 돌아보며

2020년에 여러분의 넉넉한 후원 덕분에, PDA는 650만 달러 이상을 전세계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523개 자원 봉사자 팀을 지원했습니다. 자원 봉사자 팀은 코비드-19로 인한 봉쇄 전에는 재난을 당한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출퇴근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웃을 돕기를 원하는 장로교인들 덕분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10개 전국 대응팀 팀원들은 52개 노회로 파견되었습니다.(3월 부터는 온라인으로 팀원들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위한 새로운 자료 4가지를 개발했습니다. 이는 각 지역 난민과 망명자 사역을 하는 교회들을 교육하고 안내하는데 쓰입니다. 7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한 55개의 감정적, 영적 돌봄 화상 세미나와 모임을 주최했습니다. 새로운 장로교 여성 재해 대비 트레이너 12명을 훈련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 전역에 179명의 트레이너가 있게 되었습니다. '플린트: 독극물이 퍼진 미국 도시'는 아마존 프라임에서 1백만 번 넘게 시청되었습니다. Church World Service를 통해 101,472개의 하트 키트와 이불을 기부 받아 이를 모으고 배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PRESBYTERIAN
DISASTER
ASSISTANCE**

OUT OF CHAOS, HOPE



Presbyterian Church (U.S.A.)
Presbyterian Mission

Presbyterian Disaster Assistance
 100 Witherspoon Street
 Louisville, KY 40202-1396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LOUISVILLE, KY
 PERMIT NO. 1215



YOU SHALL BE CALLED REPAIRERS OF THE BREACH

— ISAIAH 58

As Jesus says in Matthew 25, the Church belongs with those in need — whether it is offering relief from natural disasters or the ravages of war; access to food, water and healthcare; or coping with the pandemic.

Through our gifts to One Great Hour of Sharing, we are there.

We are the Church, together.



ONE GREAT HOUR OF SHARING
 SPECIAL OFFERINGS
 HUNGER • DISASTER • DEVELOPMENT

When we all do a little, it adds up to a lot.
 To learn more, go to pcusa.org/oghs